

○ 전기협회, 한국 대표단 인솔, 'PGI 2010' 참가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쌍수)는 총 43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PGI 참관단을 이끌고 지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된 'PGI 2010' 행사에 참가했다.

PGI(Power-Gen International)는 매년 말 미국에서 열리며 원자력과 전기를 포함한 세계

최대의 전력산업 전시회로, 전 세계 80개국 1200여개 업체가 전시관을 설치하고 1만 8000여명이 참관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200편 이상의 기술발표와 분야별 세미나도 진행된다.

이번 'PGI 2010'에서는 전시, 기술세션, 워크숍, 유명인사 강연과 특별히 마련된 IGCC 발전소(Polk Power Station) 견학 등을 통해 전력산업 관련 최신 기술동향과 신제품 현황 파악, 세계 유명기업 및 중소기업사들과의 활발한 정보교류 등 기대 이상의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6년째 참관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전기협회는 이 기간 동안 주한미대사관 상무부의 협조 하에 통역, 무역상담, 세션등록비 할인, 비즈니스 센터 이용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 전기협회, 2011년도 표준품셈 발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관련 공사의 공사비 산출 근거가 되는 표준품셈이 오는 1월초 대한전기협회에서 발간되었다.

전기부문 표준품셈 연구관리 전담 지정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회장 김쌍수)는 2011년도에 적용될 전기부문 표준품셈 개정안을 확정해 지난 1일부로 공표·시행에 들어갔다. 제·개정안에는 시공현장 공동실사를 통한 LED등기구 적용기준 등 6개의 제정 조항과 직접활선 장비사용에 관한 18개 조항 등 67개의 개정 조항이 반영되어 있다.

표준품셈은 전기부문 ▲제1장(적용기준) ▲제2장(송전설비공사) ▲3장(변전설비공사) ▲제4장(배전설비공사) ▲제5장(내선설비공사) ▲제6장(계측 및 자동제어 설비공사) ▲제7장(전기철도의 전기설비공사) ▲제8장(항공동화 설비공사)을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표준품셈과 함께 권말부록으로 2011년 시중노임단가 적용요령 및 단가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산정기준 등을 한 권으로 엮었다.

한편, 표준품셈 2011년판은 발주기관과 시행처 간의 이견을 더욱 해소하고, 현실화된 문구정리, 용어·적용기준 정비, 공량 및 해설조항 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 전기공사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차 사회공헌활동 시행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쌍수)는 지난해 11월 18일에 이어, 12월 8일 2진 30여명이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 본부 급식소를 방문, 2차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음식 준비에서부터 배식·설거지·뒷정리 등 전 과정에 참여해 저소득층과 노숙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1,000여명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배식하며 정을 나눴다.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발전부문 대책 설명회 개최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쌍수)는 지난 12월 14일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발전부문 대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발전산업분야 에너지관리목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개발된 표준화력발전소의 MRV 표준모델의 활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진방향 ▲사업장 현장에서의 절차서 및 MRV 프로그램 활용방법 등이 소개됐다.

